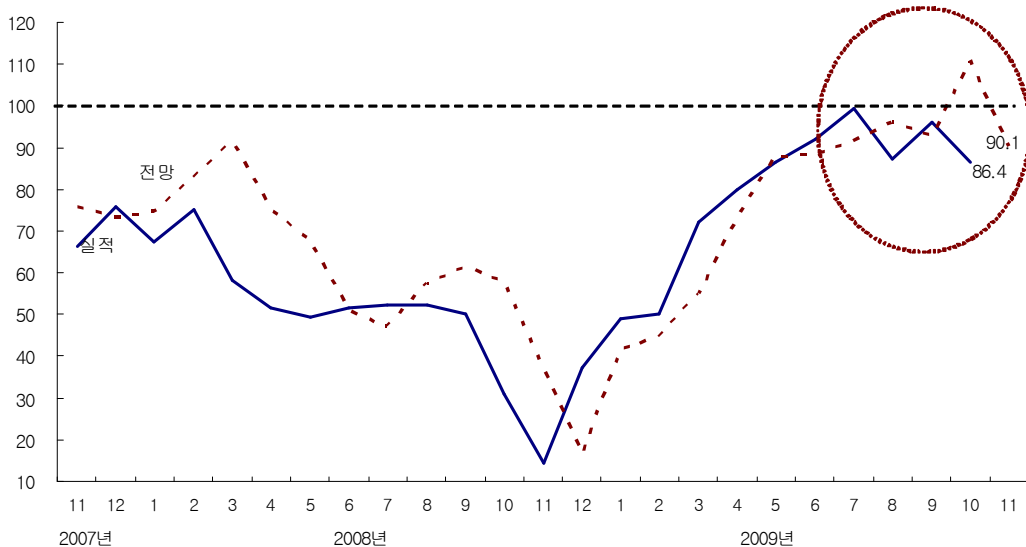


## 2009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9.7p 하락한 86.4 기록,  
8월 이후 80중반~90중반 사이 횡보세 지속

-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9.7p 하락한 86.4를 기록해 지난 7월 지수가 99.3을 기록한 후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80중반~90중반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임.
-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9.7p 상승한 86.4를 기록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지난 7월까지 지수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8개월 동안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100.0)에 근접한 99.3을 기록했음.
- 이후 8월부터 지수는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80중반~90중반 사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전망치도 90.1을 기록해 당분간 지수가 7월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채 80중반~90중반 사이에서 횡보세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반기 SOC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들어 SOC 예산 증액 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공사 수주침체, 미분양 주택 적체사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등 체감경기 등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지수가 하락했는데, 기준선을 넘어서는 대형, 중견업체와 달리 중소기업 지수는 50.9에 불과해 8월 이후 재현된 체감경기 양극화현상이 지속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37.3	48.9	50.0	72.3	80.0	86.6	92.2	99.3	87.2	96.1	86.4	110.8	90.1
규모별	대형	46.2	53.8	58.3	84.6	83.3	100.0	92.3	114.3	107.1	114.3	100.0	135.7	100.0
	중견	35.7	42.9	40.6	66.7	91.9	78.1	97.2	105.9	100.0	110.0	103.4	116.7	100.0
	중소	28.8	50.0	50.8	64.4	62.5	80.5	86.4	74.2	49.3	59.0	50.9	75.0	67.2
지역별	서울	41.0	49.2	50.9	78.0	89.7	97.5	93.9	114.6	102.7	103.0	102.2	105.7	102.0
	지방	31.6	48.4	48.5	63.8	65.0	66.5	83.6	69.8	64.2	71.1	64.6	85.9	72.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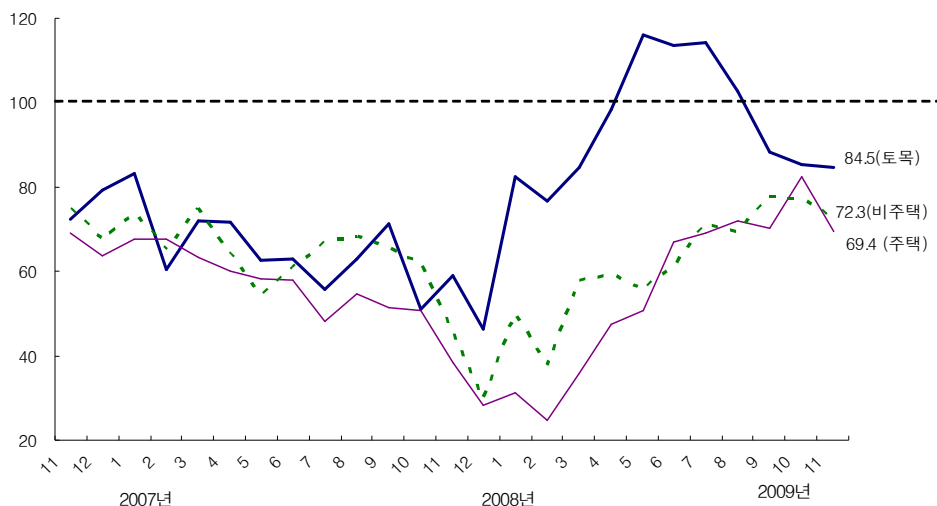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14.3p 하락한 100.0을 기록해 10월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 SOC 예산 집행 및 공공공사 발주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다만, 100.0을 기록해 7월 이후 계속해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음.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8.1p 하락한 103.4를 기록했는데, 7월 이후 계속해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
- 중소기업 지수 역시 전월대비 6.6p 하락했는데, 지수 자체는 50.9에 불과해 8월 이후 재현된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됨. 중소기업 지수는 지난 6월 전고점인 86.4를 기록했고, 7월에 74.2를 기록했으나 8월 이후 SOC 예산 집행 감소에 따라 지수가 50선에 머물며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이 재현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100선 이상인 102.2로 경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업체는 64.6로 여전히 경기가 침체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0.8p 감소한 102.2로 경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6.5p 감소한 64.6로 지난 9월보다 건설경기가 침체됨.
- 2009년 11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10월보다 3.7p 증가한 90.1로 10월보단 침체정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해 경기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100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67.2로 전망함.
- 중소기업만이 11월 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경기 개선의 기대보다는 통계적 반등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10월과 비슷한 102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7.8p 증가한 7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주택물량 감소로 전월대비 3.4p 감소한 88.3 기록

- 공사물량지수는 전 공종에서 물량이 소폭 감소, 특히 주택물량지수의 감소(-12.9p)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월보다 3.4p 감소한 88.3을 기록함.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0p 감소한 84.5를 기록, SOC 예산 증액 효과가 하반기에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다만, 4대강 사업물량으로 인하여 지수가 완만한 추이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2.9p 감소한 69.4를 기록함.
- 주택물량 지수는 지난 9월 82.3을 기록하여 2년 9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지수 상승에 주요한 요인을 미친 재건축·재개발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70선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9p 감소한 72.3을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대·중·소 업체 규모별 물량지수는 각각 114.3, 103.4, 40.7을 기록, 대형과 중견은 양호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물량침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9월보다 7.1p 감소한 114.3임.
  - 대형업체의 토목, 주택,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4.2p, 21.4p, 7.1p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모든 지수가 90이상이거나 기준선인 100에 근접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중견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같은 103.4를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토목 물량지수가 양호한 가운데(전월 대비 11.5p 증가한 111.5 기록),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80선 이하로 다소 부진한 상태임(각각 전월 대비 7.6p, 0.7p 감소).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40.7로 전월보다 2.6p 감소함. 공종별로 모든 지수가 40~30선을 기록하여 매우 침체함.
  - 중소기업체 지수의 경우 토목 물량지수만이 전월 대비 0.6p 증가했으뿐,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보다 9.0p, 6.6p 감소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8.3	114.3	103.4	40.7	109.8	58.3
	전망	99.5	128.6	103.4	61.0	120.0	69.0
토목	실적	84.5	92.9	111.5	44.1	97.3	67.7
	전망	100.3	114.3	116.0	66.1	116.3	75.8
주택	실적	69.4	92.9	78.6	31.4	85.2	45.5
	전망	72.9	85.7	85.7	43.1	85.8	53.0
비주택	실적	72.4	100.0	74.1	38.2	87.8	49.0
	전망	75.8	92.9	80.8	50.0	87.8	57.1

주 : 실적은 2009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11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 지수는 109.8(전월 보다 1.7p 증가)로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지방업체는 58.3(전월 보다 5.5p 감소)로 지난달의 부진을 이어감.
  - 서울업체의 경우 9월보다 1.7p 증가한 109.8로 호조를 지속함.
  - 서울업체 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물량상황이 양호한 대형과 중견업체가 서울지역에 분포한데 다른 결과로 판단됨.

- 지방업체 지수는 58.3로 월보다 5.5p 감소하여 침체를 지속함.
  - 지방업체의 경우 토목물량지수만이 전월 보다 0.7p 증가했을 뿐, 주택과 비주택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5.8p, 5.6p 하락함.
- 2009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전 공종에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월 실적치 보다 11.2p 증가한 99.5로 전망함.
- 토목물량지수는 4대강 사업 발주물량에 대한 기대로 10월 실적치보다 15.8p 증가한 100.3로 전망함.
  -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각각 3.5p, 3.4p 증가한 72.9와 75.8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 아직까지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관련 상황 어려우며, 10월 들어 자금 관련 상황 다소 악화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금 상황이 조금 악화되었고, 작년 상반기 이후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국내 건설수주가 8월까지 전년동기비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114.2, 100.0을 기록하며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조금 못 미친 95.2를 기록해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가 74.6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비 각각 11.2p, 3.2p 하락한 84.9, 87.4를 기록해 지난 상반기 공공부문의 선급금, 기성 지급 등으로 개선된 자금 관련 지수가 최근 들어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84.9	85.7	100.0	66.7	93.5	72.0
		전망	89.0	85.7	103.4	76.3	93.5	82.2
	자금조달	실적	87.4	107.1	89.7	61.7	100.5	67.8
		전망	89.4	100.0	93.1	72.9	97.1	77.9
인력	수급	실적	114.2	114.3	131.0	94.9	122.3	103.4
		전망	110.6	114.3	120.7	94.8	116.4	103.4
	인건비	실적	95.2	100.0	106.9	76.3	101.1	86.4
		전망	96.1	100.0	103.4	83.1	99.1	91.5
자재	수급	실적	100.0	100.0	110.3	88.1	104.8	92.8
		전망	99.8	100.0	106.9	91.4	102.9	95.2
	비용	실적	74.6	78.6	72.4	72.4	77.4	70.4
		전망	77.2	64.3	93.1	74.1	76.0	78.9

주 : 실적은 2009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11월 예측지수임.

끝.